

1분기 中企 수출 “남는 것 없네”

중기중앙회, 수출업체 147곳 조사

원가 부담·개도국 시장 잠식 탓

48% “수출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 1·4분기에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상반기 무역애로조사’에 따르면 47.6%가 ‘올해 1·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늘어났다’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곳은 31.9%, ‘동일하다’는 19.7%였다.

그러나 수출 채산성은 ‘악화됐다’고 밝힌 기업이 40.8%로, ‘호전됐다’(39.4%)는 곳보다 많았다.

이들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원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58.5%)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부상에 따른 시장잠식’(26.5%)을, 내부요인으로 ‘인건비 상승’(39.5%)과 ‘제품·기술개발 노력의 저하’(21.8%)를 꼽았다.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변동’(55.8%)과 ‘환율변동 확대’(17.0%)였다.

수출 중소기업은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수준이 1달러당 999.72원, 100엔당 999.9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28.6%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관리방법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45.2%)과 ‘시중은행 선물환거래’(31.0%)였다.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라서’(36.9%), ‘환리스크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22.3%)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수출금융 지원의 확대’(28.9%)와 ‘전시회 참가나 해외 마케팅 지원’(2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상장사 1분기 ‘깜짝 실적’

대외 약재 딛고 큰 폭 개선…전기전자·자동차·조선업 주도

국내 상장사들이 원자재값 급등과 미국의 경기침체 등 대외약재를 딛고 1·4분기에 큰 폭의 실적개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 비교 가능한 615개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224조3천93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24% 늘었다. 영업이익은 19조3천44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2.07% 늘었다. 자동차와 조선주가 포함된 운수장비의 영업이익이 101.26% 늘었고 운수장비도 영업이익이 120.57% 급증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5천291억 원으로 81.56% 증가했고 현대중공업도 6천395억원으로 18.43% 늘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업종인 화학(52.88%)과 철강·금속(28.29%)도 이익이 늘었다.

/연합뉴스

“금융권, 서민 신용대출 늘려야”

금융연 선임연구원 “소액대출 확대·대안금융 제도 추진을”

서민의 금융소외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 확대와 대안금융제도 마련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민금융체계의 방향’ 보고서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서민층 대상의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소비자금

을 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중층구조를 확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소액 신용대출의 주 대상인 서민층의 신용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로 위험 상쇄가 가능해 수익성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소액 신용대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저축금과 대형 대부업체가 축적한 소액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외에 보험사와 증권사 등 다양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영업 확대로 인한 본사의 건전성 훼손을 피하면서 여신전문 자회사 형태로 고수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저축금과 대형 대부업체가 축적한 소액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외에 보험사와 증권사 등 다양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영업 확대로 인한 본사의 건전성 훼손을 피하면서 여신전문 자회사 형태로 고수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은행은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하거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사용하여 일부 당감이나 체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이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 이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금융체무 불